목 회 자 칼 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눅9:37~42).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과연 예수님이야',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눅9:44). 예수님도 고난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의 박수나 찬사가 싫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 때가 아니며, 지금은 무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합니다(눅9:46).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린 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눅9:48).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문제의 원인은 '누가 크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작으냐? 내가 더 작다'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부유부쟁(夫惟不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상의 삶은 물과 같은 것이고 그리하면 아무 다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낮출 때 우리의 눈높이도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도 낮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벧전5:5).

축구 모임 - 헌신예배

중고등부에서 남학생 전도를 위한 방법으로 월 1회 축구경기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지난 9일이 그 첫 번째 모임으로 중고등부 학생과 대학청년부 회원들이 신방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남학생이 많지 않아서 적은 인원으로 조촐하게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학생들은 약 2시간 동안 열심히 축구를 했고 운동 후 간단한 식사와 함께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신방초등학교에서 월 1회 축구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축구에 관심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청년부 회원들이 동참해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후에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 년에 네 번, 교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중고-대청부 주관으로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이 올 해 두 번째로 17일 저녁 7시에 남선교회 주관으로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재근 부회장님이 사회를, 창원좋은이웃좋은교회를 섬기시는 정재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3:4~15절 말씀으로 '마음과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보잘 것 없던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후 일천 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인정하고, 그의 삶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친교 방문

17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창원 동시찰(갈전교회, 상남교회, 중앙교회, 창성교회 등)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 및 회원, 총 여섯 분이 연합회 친교 행사를 갖기 위해 방문하신 것입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교회 앞마당에서 우리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과 족구와 배구를 하고 이어서 저녁식사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찰 남선교회 회원 일행이 지난 2014년 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족구와 배구를 한 후 저녁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기억이 아주 좋아서인지 그 이후 매년 연합회 친교 행사 모임 장소로 우리 교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도 행사 당일 비가 와서 장소를 상남교회 실내체육관에서 옮겨서 실내운동으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전날 밤 늦게까지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려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새벽에 비가 그치고 오전부터 쾌청한 날씨에 바람까지 적절하게 불어줘서 좋은 일기 속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에 약 20여명이 방문하실 것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개 교회 사정과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앞장서서 이끄시는 임원 및 회원들이 있기에 연합회 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해 주신 귀한 손님들을 위해 남선교회 회원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님과 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준비해 주시고 앞마당이 비로 젖지 않도록 밤새 잔디밭을 방수포로 덮어 운동하기 좋게 잔디를 잘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전도회에서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손님들을 잘 대접해 주셨습니다.

셀모임 소식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마 28: 19~20)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셀 모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초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흥성회' 이후 기존 운영하던 일곱 개 셀을 아홉 개 셀(남성 세 개 셀, 여성 여섯 개 셀)로 확대 개편하고 운영 방법을 좀 더 체계화하여 지난 3월부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 남성 1셀이 진영에 있는 함흥냉면에서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셀 리더인 송수동 집사님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모임으로 회원 모두가 셀 모임의 목적 및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상호 공유하여 셀 모임이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해 보자는 취지의 모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도 참석하시어 셀 리더 및 회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남성 1셀이 더욱 번창하여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셀 모임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초 대 합 니 다

찬양집회
언제: 14일(토) 18:30 ~
어디서: 교회 앞마당
대학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언제: 15일(일) 13:00~17:00
어디서: 신방초등학교
재미있는 게임과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PASTOR's SERMON

In Luke 9:37~42, Jesus healed a boy with an evil spirit as per his father's begging. This become another chance for a large crowd at that spot including his disciples to be amazed at Jesus' greatness. But, Jesus was not immersed in that situation. Instead, he said to his disciples that "The Son of Man is going to be betrayed into the hands of men."

The disciples could not understand what Jesus told them because its meaning was hidden and they did not ask Jesus of its meaning. Instead, they started an argument as to who should be the greatest among them. Jesus, knowing what their intention was, without criticizing them, took a little child and said to them, "Whoever welcomes this little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one who sent me. For he who is least among you all—he is the greatest."(Luke9:48)

Most of the strifes and disputes among friends, neighbors and even husbands and wives come from 'who is the greatest?'. No strife will happen if we say, 'I am the least' and 'Who is the least?' Think of water which is beneficial to everyone and never quarrels by turning around when it meets any obstacle and it flows from high to low place.

Then, how can we lower our heart? It will be possible if we humble ourselves under God's mighty hand and then God will give us grace and lift us up in due time.

2016년 5월 주요 일정		
일시	행사	주관
1일	어린이 주일	교회학교
8일	어버이 주일	교회학교

이 내용은 새빛교회 홈페이지 교제와나눔/교회소식방에 있습니다.

대 한 예 수 교 장 로 회
새 빛 교 회

www.sbch.net
055)251-0669
(5111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268-2
담임 : 조신제 목사 (neolux21@naver.com)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주일~금 오전 5: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30
유치부·꿈자리	주일 오후 2: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40
대학·청년부	토요일 저녁 7:30